

# ‘호남선 종착역’ 목포역, 서남권 랜드마크 만든다

### 490억 투입 2028년 완공 목표...3층 규모 선상역사 신축 철도시설 재배치·역세권 개발도 속도...원도심 활성화 기대

‘호남선의 종착역’ 목포역이 노후역사 신축 등 대개조사업을 통해 서남권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된다.

목포시는 4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목포역 노후역사 신축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역은 일제강점기인 1913년 개통된 이후 1978년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하루평균 7000여명, 주말 평균 1만여 명이 이용하지만 건축된지 46년이 지나면서 타 역사 대비 1인당 대합실, 화장실 등의 시설이 협소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번 사업은 협소하고 낡은 지상역사를 철거하고 3층 규모의 현대적인 선상역사를 건설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 5월 목포역 설계 공모 당선작을 결정하는데 이어 10월부터는 실시 설계에 들어갔다. 오는 2026년 1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포시는 목포역 신축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해선과 호남고속철도 등 향후 열차 수요 증가를 대비해 기존 철도시설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목포시는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을 위해 관계부처와 꾸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호남고속

철도 2단계 사업에 반영됐다.

철도시설 재배치사업은 국가철도공사가 실시설계에 착수하면서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목포역의 대개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노후역사 신축과 철도시설 재배치와 연계한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을 목표로 역세권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향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최적의 기본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남해선 철도 개통 및 철도시설 재배치, 선상역사 신축,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목포역을 서남권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성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목포역이 노후역사 신축 등 대개조사업을 통해 서남권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될 예정이다. 목포역 전경. (목포시 제공)

# 완도군민 숙원 ‘약산~금일 연륙교 건설’ 청신호

###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1단계 국가 계획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내년 상반기 최종 대상지 선정



완도 약산~금일 연륙교 조감도.

완도군의 숙원인 국도 27호선 완도 약산~금일 연륙교 신설 사업이 도로 분야 국가 계획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선정·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도와 국지도를 신설하거나 확장·개량하는 국가 계획으로, 지난 2023년부터 사전 검토와 타당성 연구 용역을 거쳐 사업 대상지가 확정됐다.

완도 약산~금일 연륙교 사업은 완도와 고흥의 섬과 섬을 5개의 교량으로 잇는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1단계 구간이다.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는 총연장 L=27.4km, 총사업비 9천8억 원이 투입되며, 1단계 구간은 완도 약산에서 금일까지로 L=7.8km, 사업비 4천99

억 원, 2단계 구간은 완도 금일에서 고흥 거금까지 L=19.6km, 사업비 4천909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SOC 건설 사업이다.

그동안 완도군은 완도~고흥 간 국도 승격 이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와 전남도와의 협업 등 섬 없이 달려와 1단계 구간이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앞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경제성 및 정책성 평가 등을 거쳐 종합

평가를 실시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착수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의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약산에서 금일을 잇는 연륙교가 조기에 준공되어 섬 주민 교통 기본권 확보 및 해양관광 활성화로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해남 청년문화공간 ‘두드림하우스’ 2곳 추가 조성

### 유희공간 공유오피스 등 개조 모임·단체 최대 2000만원 지원



북평면 청년문화공간 ‘두드림하우스’.

해남군은 청년문화공간 ‘두드림하우스’를 올해 2개소 추가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두드림하우스는 농촌의 방치된 유희공간을 활용해 청년아지트, 공유오피스, 문화전시 등 지역 청년들의 문화교류 공간으로 개조하는 사업이다.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와 면단위 농촌 공간 개선의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난 2023년에는 북평면의 폐업한 당구장이 문화 기획 전시와 프로그램 운영 등이 가능한 공유업무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지난해에는 송지면의 폐업한 음식점을 개보수해 독서 모임, 작가 초청 특강,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청년들의 활발한 네트워킹 공간으로 만들었다.

군은 올해 2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개소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해남군에 거주하고 있는 면단위 청년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또는 단체다. 청년들이 원하는 시설

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 받는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해남군 누리집을 통해 지원 자격과 신청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활동 공간을 위한 수리비 지원으로 청년 공동체 활성화 도모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영광군, 전기차 106대에 구매지원 보조금

### 승용차 최대 1330만원·화물차 2300만원...다자녀가구 국비 지원 확대

영광군이 오는 10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접수 받는다.

올해 상반기에 전기승용차 122대(일반 112대·초소형 10대), 전기화물차 84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추가적인 물량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33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

대 2300만원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며 각 차종별로 지원금은 상이하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해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및 법인 등이며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1대로 한정된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조·수입사를 통해 하면 된다.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방식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차량구매 가격 등 차량에 관한 사항은 제조·수입 판매사 등에 문의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무궁해자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광군관계자는 “올해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 국비 지원이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간 보급사업을 더욱 확대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 영암 농촌 빈집 고쳐 드립니다

###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공사비 지원받고 7년 무상 임대 참여자 모집

영암군이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사업’ 참여자를 7일까지 모집한다.

방치된 빈집 경관을 개선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이번 사업에는 영암의 빈집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다.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 후 이동식주택을 설치한 뒤 7년간 영암군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건이다.

리모델링은 창호·도배·장판·방수 등 주택 개보

수 공사비를, 이동식주택은 구입·설치비를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이 사업으로 미관을 해치는 빈집의 재생·활용을 유도해 소유자에게는 관리 부담 감소, 자산가치 상승의 편익을 준다.

영암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에게는 이 주택을 1만원에 임대해 임시 주거시설 제공해 초기 정착 비용 절감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활용한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 “내란세력 척결하고 새 대한민국 건설”

### 더민주신안혁신회의 준비모임 개최...정권 교체 등 핵심과제



더민주전남혁신회의(이하 전남혁신회의)가 22개 시·군 혁신회의 출범을 앞두고 3일 신안에서 더민주신안혁신회의 준비모임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준비모임에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방용승 상임공동대표, 전남혁신회의 조성철 상임공동대표, 강병국 공동대표, 조성식 정책위원장, 이열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혁신회의는 이날 ‘국민과 함께 내란세력 척결’을 목표로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고 대선 승리를 이루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설 것을 밝혔다.

또 더민주신안혁신회의 준비모임에서는 대표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준비모임에서 신안혁신회의 지도부로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이 공동대표로 선출되었으며, 추후 3인 공동대표 체제 및 각급 위원회 사무

구 구성 등 조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남혁신회의는 ▲정권교체 및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민생경제와 실용적 성장경제 구축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소득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 ▲다극적 살리외교 및 남북평화공존 등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전남 도민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신안혁신회의의 이상주 공동대표는 “신안군민의 염원과 지지에 힘입어 신안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혁신회의는 오는 22일 보성 다량체육관에서 전남혁신회의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3월 1일 서울 컨텍스트에서 열리는 1만명 규모의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전국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추후 3인 공동대표 체제 및 각급 위원회 사무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무안군, 지적재조사·도로명주소 합동 홍보

무안군은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달 24일 무안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시장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및 도로명주소 합동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에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보호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적재조사사업과 도로명주소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물품을 나눠줬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체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국책 사업으로 2013년부터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무안군은 올해 ▲무안신학2지구 ▲일로의산1지

구 ▲삼향백포2지구 ▲정계정수2지구 ▲현경평산3지구 ▲해제양매1지구 등 총 6개 지구 4135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로명주소는 건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 공중전화, 우체통 등 각종 시설물과 민방위 대피시설과 같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장소에 대해 건물주소를 부여하고, 산악·해안지역에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는 촘촘한 주소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수영 무안군 민원지적과장은 “주민들이 지적재조사사업과 도로명주소 이용에 많은 관심 가져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지적재조사사업과 도로명주소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